

2004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국어학

1. 편성

- 일시: 4월 28일(수) ~ 4월 30일(금) <2박 3일>
- 장소: 강원도 삼척시
- 답사 참가자: 지도교수: 최명옥, 송철의, 이현희, 장소원, 전영철 (5명)
인솔조교: 박재연 (1명)
전임대우강사: 김봉국 (1명)
대학원생: 윤민, 안소진, 하신영, 이상욱, 김세환, 나카니시, 스카이,
조호, 이금화, 김춘자, 유동엽, 백정민, 서광비, 양순경, 오
민석, 이춘영, 박지용, 신윤희, 김민선, 이문가 (20명)
학부생: 권선영, 오소영, 김다슬, 강현화, 문규원, 채선화, 최윤지, 손
정은, 이수연, 김혜영, 조혜빈, 박재은 (12명) <이상 총 39명>

2. 답사일정

《4월 28일》

- 08:00 교내 대운동장 집결
- 13:00 삼척 도착
- 13:00-14:30 점심식사
- 14:30-15:00 숙소 배정
- 15:00-16:00 죽서루, 박물관 관람
- 16:00-19:00 방언 조사
- 19:00-20:00 저녁식사
- 20:00- 숙소 도착, 조사 보고, 뒤풀이

《4월 29일》

- 09:00-10:00 아침식사
- 10:00-18:00 방언 조사

18:00-18:30 숙소 집결, 환선굴 부근으로 이동, 숙소 배정
18:30-20:00 저녁식사
20:00- 조사 보고, 뒤풀이
《4월 30일》
09:00-10:00 아침식사
10:00-12:00 환선굴 관광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친은사 관광
14:00-18:30 삼척 출발
18:30 서울 도착

3. 삼척시 정보

■ 기본 정보

강원도 동남부에 위치한 시. 동쪽은 동해, 서쪽은 정선군·태백시, 남쪽은 경상북도 울진군·봉화군, 북쪽은 동해시와 접하고 있다. 27개 동, 6개 면, 101개 리로 되어 있으며, 시청 소재지는 교동이다.

■ 주요 사적지

《죽서루》

관동팔경의 제일루. 보물 213호. 동쪽 죽림에 죽장사가 있어 죽서루라 이름하였다 한다. 누 동쪽에 명기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죽서루라 하였다고도 한다. 죽서루는 경치 좋은 절벽 위에 건축하기 위하여 자연암반을 기초로 삼았다. 17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 9개의 기둥은 자연암반 위에 세웠고, 나머지 8개 기둥은 석초(石礎) 위에 세웠는데 17개의 기둥 길이가 모두 다르다.

《환선굴》

삼척 신기면 대이리에 위치한 석회동굴. 5억 3천만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총 연장은 6.3km이다. 이 중 1.6km를 개방하고 있다. 그 역사와 규모면에서 동양 최대를 자랑한다. 환선굴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동굴에서 선녀가 환생을 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1962년 처음으로 발견됐지만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다가 1997년부터 개방되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다.

4. 방언조사 내용

(1) 조사지 및 제보자 정보

조사지	제보자 정보	비고
하행방 1리 (연봉리)	홍순식(남, 83세) 홍재승(남, 84세)	남양 홍씨 집성촌
덕산리	이금옥(여, 80세)	

(2) 음소 목록

- ① 단모음: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의 10 모음체계
- ② 이중모음: '여, 예, 야, 유, 요, 웨, 왜, 워, 와, 의'의 10 모음체계

(3) 음운 과정

- ① '-어/아' 교체: 문장을 끝날 때는 '먹아, 입아, 먹았아, 입았아'로 됨.
- ② 음라우트: '사램이가 너무 많아', '하핵이가 있어'
- ③ 활음화: '이것 좀 좌, 내인테 좌요'
- ④ 자음군 단순화: 박귀)빨귀, 닭)달, 흙)홀
 닭+만 → 닭만, 흙+만 → 홀만,
 닭+다 → 말따, 밭+는다 → 빨른다.
- ⑤ 불규칙 활용: 듣 → 들- (듣는다, 듣고, 들으니) 들른다, 들꼬, 들으니
 씻 → 췌- (씻고, 씻으니, 씻어) 씻고, 씨이니, 췌)

(4) 인접방언과의 비교·대조

① 영동방언과의 비교·대조

- * 영동방언과 달리 '-어' 계통의 어미를 선택하지 않고 '-아' 계통의 어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함. 예) 신을 신아, 신았다/ 옷을 입아, 입았다
- * 경북방언의 영향으로 음라우트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 예) 사램이가

너무 많아.

② 경북방언과의 비교·대조

모음의 수가 강원도 10개, 경북 6개로 차이가 있음.

- 예) 귀신<삼척> 기신<경북>
- 외국<삼척> 애국<경북>

(5) 어휘체계

어휘항목	삼척방언형	비고
농 사		
벼	베	
못자리	모자리	
김매다	매다	
호미씻이	호무시시미	
보습	보섭	
씨래	씨그래	
호미	호무	
자루	잘기	
팽이	광이	
쇠스랑	쇠스라이	
삼	삼	
벗단	태관	
벼훑이	손찍개	베훑른 찍개, 베찍개
개상	태쌍	
도리깨	도루깨	
명석	명석	
(짚)방석	방석	
삼태기	소구리, 지게	밀뻐, 지페이
절구	절구	
디달방아	디달마:	
방앗공이	비아고이	
확	호박	
맷돌	매뜰	암니미, 순니미
썰기	씨기	
겨	제, 새제	왕게, 등가리
키	치	
어레미	얼게미	채, 채빠쿠

보리	보리	
감부기	감보기	
팔 -에/-이 /-으로	팔, 파트	옹심, 새알, 판시리떡
조	스속	지장
수수	수수, 대끼지	
깨 참깨/들깨	깨, 참깨, 들깨	참기름
무무말랭이	신기리	무꾸
채소	채소	
나물	나물	
고갱이	배추속, 배추고개이	
파	파, 정구지	쪽파, 대파
고구마	고구마	캐다
가지	가지	
음 식		
김치	궁물김치, 배추짬지	동지미, 무집치
까두기	까띠기	
간장	간장	장물 때란다
두부	드부	
콩나물	콩나물	
상추	불기, 생초	
오이	외, 무외	
부추	전구지	
김	집	
반찬	반찬	
술 -이/-을/-에		소치, 소테
이남박	쌀남박	인다
조리	조구리	시늘
주걱	밥죽, 밥주개	
누룽지	누렁지	
승냥	승냥	
가루	갈기, 가리	
흰떡	절편, 찰떡, 송편	떡손
백설기	백설기, 시리떡	
밀기울	밀씨울, 무거리	메물

국수	국쭈, 킨국쭈	
고명	보신	
새알심	웅심, 새알	
수제비	수제비	
과줄	과질	
엿기름	열절금, 열짜	
식해	시캐	
시루	실기	실게다
뚝배기	오뚜가리, 뚝빠기	
바가지	바간찌	
부엌 -에/이	버:게, 정지	
아궁이	아궁이	
부뚜막	부뚜막	
부지깅이	부지깨	
고무래	불곰배, 곰배	
부삽	불삽	
숫 -이/-에/-을	숫, 수치	수츠, 수체다
화로	화리	
부젓가락	불찍깨	
다리쇠	그자리	
석쇠	몬태	
담뱃대	담배때	
성냥	성냥	
부시	부시쇠	
굴뚝	굴뚝	
그을음	거멍	
넙다	매과	
가 옥		
살강		
시렁	실광	
선반	선반	
서랍	빼다지	
궤	농, 장농	
자물쇠	자물통	
열쇠	쉐때	
베개	베개	

목침	퇴치미, 몽치미	
누비이불	늪비이불	
마루	툰마루	
미단이	밀창	
돌쩌귀	돌쪼기	
벽	벉	
굽도리		
흙손	벉칼	
귀알	솔	
종이	조:	
구겨지다 구기다	꾸부러지다, 꾸게진다	
사닥다리	새다리	
기와집	기와집	
초가집	초양집	
이엉	이엉	
엮다	엮는다	
이다	에올라가다	
용마름	용마람	
기둥	지둥	
주춧돌	취치돌	
서까래	세까래	
처마	처마이 생긴다	
추녀	취애	
고드름	고드름, 고드레미	
울타리	우따리	
담	담장, 퇴비장	
뜰	마당	
뒤결	똥:	
장독대	장독간	
변소	뒤간, 통시간, 변소	
쌈	쌈	
우물	우물	
두레박	뜨레박	
또아리	따바리	
도랑	흙, 도랑	도라이
개울	개:	

거품	거품	
수채	수채	자신물
구멍	구멍	
의 복		
빨래		
애벌	빨래 아이(지습)	
두벌		
다듬잇돌	빨래뜰	다디미방마이
다리미	대리미	
인두	인두	
허리띠	허띠	
두루마기	두리메기	후루매
염낭	주머이	
고쟁이	고제이	
잠방이	반바지	
버선	버선	
대님	대임	
짚신	짚씨기	참신
나막신	나막썸	
옷감	오감	
형겂		
깁다 -어라/-지	꺾매 입는다	
재봉틀	자봉, 자방	
골무	골미	
가위	가위	
반질고리	바느질글씨라구	
베	베, 삼베	광목, 무명
솜	솜	
목화	모카	
씨아	씨기	모카 튼다
누에	누에	명지
번데기	뻥디기	
뻥나무	뻥나무	
오디	오두	

신체		
머리 대가리 돼지 머리	대가리	
머리카락	머리, 머까닥	새치(흰머리)
가마	쌍가매, 가매	
가르마 (가르마)타다	가름배	탄다
비듬	비름	
턱	택	
수염 턱수염 콧수염 구레나룻	염 셈 콩췌미 털부	
목 모가지	목 모가지	
얼굴 -을 -에	얼굴	
뺨	뺨	
보조개 볼거리	태잔	
주름살 이마 주름살 눈 옆 주름살	잔주름 쭈그름살	
눈 검은자위 흰자위	눈 눈동자 검은자위	
눈두덩 -붓다	눈뚱 부엌따, 붙찌	
눈썹	눈썹	
눈곱	눈꺼비	
다래끼	다래끼	
소경	봉새	
애꾸		
코	코	코꾸영
입술	입, 입술기	
혀	세	

병어리 말더듬이	바:리 며들베기	
꿇볼	귀뺨	
귀지 귀이개	귀치, 파내다	
귀머거리 귀먹다	귀머거리	
세수대야 씻다	세수때:	
비누	비누	
목욕 목물	모욕, 몽물	
거울	거울	
빗 얼레빗 참빗	비시 비스는 얼개빔 챜빔	비세
다리	달비	
손	손	손꾸락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손바닥	손빠닥	손뚱
손가락	손꾸락	
마디 대-	매두	
겨드랑	자르레이	
젓	젓, 저즈	
배꼽	배꼽	
허리	허리	
다리	다리	신다리, 장따리
가부좌	낭근다리	
넓적다리	신다리	
무릎 -을 -에	무릅	무르피
오금	오금	
저리다	제린다	
정강이	얏짱개이	

뼈	뼈, 뼈다구	
복사뼈	복상씨	
부스럼	현대, 부시럼	
고름	고름	
사마귀	사마구	
두드러기	두드레기	
땀띠	땀때	
버짐	버짐	
기계충	기계충	
주근깨	주근깨	
여드름	어드름	
멍	싱거미	
언청이	쟁보	
곰보	곰부	
천연두	손님	
홍역	홍진	
감기	감기	
딸국질	곶뜨기	
트림	트림	
재채기	재취기	
하품	하품	
기지개	지지개	
졸음 졸다 졸리다	자분다 자부구 일따	
방귀 -뀌다	방구 뀐다	
구린내	쿤내	
고린내	발내금새	
친족		
어머니 엄마 어미	어마이 어머니	
아버지 아빠 아비	아부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하라버지	

형 언니 누나 오빠	형 언니 누: 누님(결혼후) 오빠, 오라버니, 오라바이	마텃, 형수
아우 아우보다 아우타다	동상 아우탄다	
며느리	며누리	자부, 아번님
처녀	채녀	총각
새색시	아가씨	새댁, 새세대기
사위	싸우	
올케	올케	
시누이	시누:	
매형 매제 매부	매형 매제	
시숙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시동상	시아주머니
홀아비	호부레비	
홀어미	과부	
환갑 환갑잔치	한갑 한갑잔치	
효자	효자	효부
백부	크나버지	
중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조카 조카딸	삼촌 조카	
이모 고모	이모 고모	고모부
남	남	
이웃 -에	이웃	이우데

기타		
마을 이야기 마을간다	마을간다	
가게 구멍가게 잡화상	가게 구멍가게	
얼마	얼매	
잔돈 거스르다 거스름돈	거실러 받는다	
우수리	까까달라	
에누리	에누리	
덤	더주리	
대장간 -에서	대장간	
풀무	풍구	
모루 모루채 벼리다	모리 망치 베린다	쇠모리 베름제이
바퀴	바쿠	
마지기	마지기	자리
마리	마리	
컬레	커리	
포기	포기	
뺨	뺨	
꾸러미	줄	
접	접	
필	무명-필	광목통
병	병	

2004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고전문학

1. 답사내용

(1) 기간

2004년 4월 28일(수) ~ 4월 30일(금) (일부 조는 5월 1일(토)까지)

(2) 지역

경상북도 상주·문경 일대

(3) 목적

상주, 문경일대에 남아 있는 옛 문인들의 자취 및 역사 유적을 탐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소규모 조 편성을 통해 관심사를 세분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해당 지역을 면밀히 답사하는 것에 답사의 초점을 두었다.

(4) 참가인원

지도교수 : 조동일, 김병국, 서대석, 권두환, 박희병, 이종묵, 정병설 교수

인솔교교 : 김준범

대학원생 : 고은, 박재민, 박이정, 김경희, 김수진, 최지녀, 장유승, 윤경아, 김성준, 안효빈, 김형술, 백승호, 이유진, 이홍우, 김세라, 고은임, 전해영, 조선영, 양퇴뢰, 김현녀

학부생 : 김소희, 김지윤, 전인혜, 양혜진, 이수진, 구슬아, 전주경, 양민주, 김inna

총인원 : 37명

2. 답사 일정 및 활동내용

(1) 조별 답사 일정 및 활동내용

4월 28일 수요일 오전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의 답사는 조 별로 이루어졌다. 각 조가 서울에서 대략 오전 9시에 집결해서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답사는 상주, 문경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각 조의 관심사에 따라 답사 장소와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조별 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1조는 서대석 선생님의 지도 아래 김경희, 김성준, 박명숙, 이유진, 조선영, 김소희, 김지윤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1조는 특히 답사 지역의 구비 문학 자료에 대해 관심을 두고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 첫째 날에는 고령가야(古寧伽倻)의 왕릉과 왕비릉을 답사하고, 이후 '연밥 따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공검지를 찾아갔으며, 상주 민요마을을 방문하여 김황식 씨로부터 민요를 채록하였다. 둘째 날에는 경천대와 정몽주, 김굉필 등이 배향되었던 도남서원, 정기룡(鄭起龍) 장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충의사 및 노악산 남장사를 방문했다. 답사 마지막 날 해산 후에는 동학교당과 대산루 등을 답사했다.

2조: 2조는 권두환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박이정, 박재민, 전인혜, 양혜진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2조는 답사지역에 남아 있는 고전 시가 작가들의 흔적에 큰 관심을 두고 답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상주 일대를 답사했는데, 우선 사벌면 매호리(梅湖里)에 남아 있는, <매호별곡>의 작자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의 유적을 찾아갔고, 사벌면 삼덕리에서는 시조 <개암십이곡>을 남긴 김우평(金宇宏, 1524~1590)의 유적과 가사 <봉산곡>을 남긴 채득기(蔡得沂, 1605~1646)의 유적을 찾아갔다. 둘째 날에는 문경 일대를 답사하였는데, 문경읍 당포리에서 권섭(權燮, 1671~1759)의 영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문경 지역민들이 소장하고 계신 고본 도서들도 볼 수 있었다.

3조: 3조는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고은, 김수진, 최지녀, 김인나가 답사에 참여하였다. 3조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였던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 첫째 날에는 이인상이 벼슬하기 전 청년기를 보낸 김포와 시흥 일대를 답사했다. 둘째 날에는 이인상이 민우수(閔遇洙, 1694~1756)와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을 만나기 위해 들렀던 여주 일대와, 그의 벗 이윤영(李胤永, 1714~1759)의 은거지였던 단양 일대를 답사했다. 단양 사인암에는 이인상이 새긴 “繩直準平, 玉色金聲, 仰之彌高, 巍乎無名. 辛未昏 胤止定夫 元靈 撰”이라는 전서가 남아 있어, 답사팀은 이 전서를 탁본하였다.

4조: 4조는 이종묵 선생님의 지도 아래 김세라, 김형술, 백승호, 안효빈, 장유승, 양희퇴, 김현녀, 구슬아, 전주경, 양민주가 답사에 참여하였다. 4조는 답사지역에 남아있는 문인들의 흔적과 그들의 한문학 작품에 관심을 두고 답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문경에 도착하여 권섭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던 화지동과 남석정을 답사했다. 또 채수(蔡壽, 1449~1515)가 지은 쾌재정(快哉亭), 채득기(蔡得沂, 1605~1646)가 지은 무우정(舞雩亭) 등을 찾아갔다. 둘째 날에는 문경시에 있는 이재(李緯, 1680~1746)의 학천정(鶴川亭)과 화양동 계곡, 그리고 괴산군에 있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묘소를 답사했다. 마지막 날에는 만년에 우복산에 거했던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종가를 방문하였다.

5조: 5조는 정병설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고은임, 윤경아, 전혜영, 이수진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5조는 영주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곳의 사찰, 서원, 박물관 등을 찾아갔다. 첫째 날에는 영주 풍기면의 부석사, 순흥면의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이어 가까이 있는 소수서원과 최치원(崔致遠, 857~?), 이재 등의 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의 선유동 계곡을 찾았다. 둘째 날에는 상주로 들어와 낙동강 물길 중 가장 경치가 좋다고 알려진 사벌면의 경천대와 도남서원을 방문했다.

(2) 전체 답사 일정 및 활동내용

전체 답사팀의 집결은 4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이루어졌다. 집결장소는 일해원이었다.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는 답사 참여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조별 답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친목을 도모하고 답사의 피로를 풀기 위한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동일 선생님과 함께 하는 마지막 답사라는 점에서 함께 모인 자리가 여러모로 뜻 깊었다.

이튿날인 4월 30일 금요일에는 일반인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사찰인 봉암사를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각 조는 간단한 조별 답사 후 귀경하였다.

2004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문학

1. 답사 개요

2004년, 국문과 제 43차 학술답사 기간 중 현대문학전공자들은 전라북도 부안, 고창 지역을 살펴보았다. 답사 목적지인 전북 부안, 고창 일대는 변산 반도를 사이에 두고 어우러진 경치와 많은 문화 유적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1) 기간 : 2004년 4월 28일(수)~2004년 4월 30일(금)

(2) 장소 : 전라북도 부안, 고창 일대

(3) 참가인원

지도교수 : 오세영, 신범순, 양승국, 박성창, 방민호

인솔조교 : 차미령

박사과정 : 김성욱, 김학균, 허련화, 백지혜, 정여울, 이경현, 김지영,
최현희, 이성희, 김예리

석사과정 : 박진우, 박어령, 정하늬, 안용희, 류광현, 최진욱, 김효재,
서세림, 이민정, 조운정, 양근애, 최정아, 유승환, 이인나,
김조야, 웅웬티히엔, 엄춘하

학사과정 : (4학년) 정기인, 정주화

(3학년) 이광욱, 백두산, 서보경, 주지연, 강문희, 정실비,
김영미, 이지민, 임연주

2. 답사일정

2004년 4월 28일 오전 8시 30분에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 집결하여, 인원과 준비물을 점검한 뒤, 9시에 전라북도 부안읍으로 출발하였다. 3시간 30분가량 걸려 도착한 부안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동중리 신석정 생가로 들어섰다. 지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서인지 집은 많이 낡아 있었고, 잡풀이 무성했다. 그러나 넓은 마당 가운데에는 아담한 초가집이 들어서

있었고, 부역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초가집 안방에는 시인의 사진이 걸려 있어 시인의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었다. 봄별이 드는 마당에서 답사팀은 시인에 관한 오세영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시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후 답사팀은 능가산에 위치한 내소사를 방문하였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혜구두타가 소래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고찰이다. 할머니 당산목을 지나 일주문을 들어서면 유명한 전나무숲길이 이어져 있고, 전나무 숲길의 끝자락에는 잘 가꿔진 잔디밭 위에 부도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왕문을 들어서면 할아버지 당산목, 봉래루, 3층석탑, 설선당, 대웅보전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사찰건축을 대표하는 대웅보전은 삼존불, 공포, 백의관음보살좌상 등 구석구석 눈을 땔 수 없는 곳이었다. 답사팀은 내소사 스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대웅보전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소사에서 내려와 답사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채석강으로 향했다. 변산반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채석강은 당나라 이태백이 배 위에서 술 마시다가 물에 뜬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은 채석강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답사자들은 채석강의 일몰을 바라보며 하루해의 아쉬움을 달랬고, 우연히 채석강을 찾은 소설가 윤대녕씨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일몰을 보고 숙소로 돌아온 답사자들은 발표회 및 저녁모임을 준비했다. 석사과정 서세림이 신석정 생애조사를 발표했으며, 박사과정 이성희가 〈신석정시 연구-자연과 정신의 의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신석정 시세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 후에 이루어진 신석정 시세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그의 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을 먹은 답사자들은 채석강 근처 숙소에서 1시간가량 걸려 고창읍성에 도착했다. 먼저 고창읍성 앞에 위치한 신재효 고택을 돌아보았고,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판소리 박물관에 들렀다. 희귀 음반과 명창들의 사진 관람, 그리고 안내자의 자세한 설명은 판소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느끼는 데 손색이 없었다. 박물관에서 나온

답사자들은 고창읍성에 올랐다. 조선 단종 원년(1453년)에 왜침을 막기 위해 축성한 자연석 성곽인 고창읍성은 현재 전라도 주민들에게는 매년 장수와 극락왕생을 비는 답성놀이 행사의 장이 되어 있는 곳이었다. 답사자들도 봄 꽃 가득 핀 고창읍성을 둘러, 시원한 봄바람을 만끽했다.

고창읍성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답사자들은 인촌 김성수 생가에 들렀다. 제2대 부통령을 지내고, 보성전문학교를 이끌었던 김성수 선생이 성장했던 생가는 그 건물과 생활 도구 등을 통해 호남 토호의 집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인촌생가에서 나온 답사팀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서정주 생가와 미당시문학관을 방문했다. 부안면 선운리에 깨끗하게 복원된 미당 생가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생가 바로 옆에 자리한 미당시문학관에는 미당의 육필원고, 사진자료, 초상화 등 유품과 각종 서적 1만 여점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된 유품만으로도 답사팀을 풍성하게 했다.

이후 답사팀은 고창 도솔산에 위치한 선운사를 찾았다. 백제 위덕왕 24년(577년)에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선운사는 대웅전의 웅장함과 대웅전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만으로도 역사 깊은 대사찰임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다만 일정상 도솔암에 들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사찰에 들어서는 길에 볼 수 있는 맑은 연못과 수많은 비석, 선운사를 둘러싼 동백꽃은 그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선운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답사팀은 내장산 숙소에 도착해 발표회 및 저녁모임을 준비했다. 발표회에서 학부생 정기인의 서정주 생애조사 발표가 있었고, 박사과정 김예리의 〈질마재 신화의 영원성 고찰〉이라는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서정주 시인 관련 발표에 이어, 안도현 시인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시인과의 담소가 이어졌다. 밤늦은 시간까지 답사팀과 함께한 안도현 시인과의 자리를 통해 답사자들은 시인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답사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오전, 답사팀은 황토현 전적지를 찾았다. 이곳은 황토로 덮인 작은 산으로 1894년 갑오동학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전승지이다. 전적지를 찾은 답사팀은 황토현의 붉은 흙둔덕을 바라보며,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여러 문학작품을 떠올렸다. 답

사팀이 황토현을 떠나 1시간가량 버스로 달려 도착한 곳은 금산사였다. 모악산 도립공원 입구에 서 있는 금산사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 미륵보살상과 산 입구에서부터 금산사까지 늘어선 벚나무가 장관이었다. 특히, 옥내 입블로는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미륵보살상은 보는 이가 그 웅장함에 기가 놀랄 정도였다. 점심을 먹고 찾아간 전주한옥마을에서는 때마침 전주향토축제가 벌어지고 있어 더욱 흥겨운 답사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답사팀은 전통성당과 전주향교를 돌아보며 아파트 가득한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취를 느꼈다. 한옥마을을 끝으로 답사팀은 사흘간의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가는 길에 올랐다.

이번 현대문학반 답사는 백제의 역사 깊은 문화 유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부안·고창 일대에서 나고 자란 문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돌아봄으로써 그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문인들의 생가가 너무 훼손되어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 역시 문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